



한솔 愛 건강



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건강상식

◆ 어른 백일해 ◆

백일해균(보르데 텔라)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한 호흡기 질환으로 ‘흡’하는 소리 발작,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서, 14일 이상의 특징적인 기침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. 특히 가족 내 2차 감염이 80%에 달하며 여름과 가을에 발병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.

■ 원인

주로 공기 중 비말이나, 백일해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. 잠복기는 7-20일이며, 감염된 환자는 기침을 시작한 후 최소 3주 동안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된 환자는 반드시 격리되어야 합니다.

■ 증상

어른의 경우 소아에 비해 가볍게 나타날 수 있지만,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콧물, 미열, 가벼운 기침 증상이 나타나며, 기침이 지속되면서 점차 심해지면 발작성 기침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. 고령자나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은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.

1. 초기 단계: 콧물, 미열, 가벼운 기침 등의 감기 증상

2. 진행 단계: 지속적이고 격렬한 기침,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



3. 회복 단계: 기침은 점차 완화되면서 증상이 호전됨

■ 주의사항

백일해 환자의 기침을 통해 나오는 파편물에 의해서 다른 감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말 격리를 해야 합니다. 백일해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시작한 후 5일까지 격리되어야 하며,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증상 시작 후 3주까지 격리 되어야 합니다. 또한 백일해 초기에 가장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주의해야 합니다.

■ 청색증

청색증은 입술·귓볼·팔다리끝·구강점막 등 피부조직이 얇은 곳에 잘 나타나며, 심한 경우에는 온몸이 시퍼런 경우도 있다. 심폐 질환 증세의 하나로 위독한 질환의 예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.

이 증세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손가락 끝이 곤봉 모양으로 변하기도 합니다.

◆ 응급상황발생시

국번없이 1339

◆ 노인보호전문기관

1577-1389